

사교육 현상에 대한 세계적 동향 분석 -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기제를 중심으로 -*

이종재(李宗宰)** · 이희숙(李姬淑)***

논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사교육 현황과 사교육 수요 유발 요인에 관해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사교육 실상과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교육에 대한 주요 국제 연구들을 검토하고, TIMSS(Trend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1995, 2003년도 8, 12학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관점에서 macro level의 학력주의 가치관, meso level의 경쟁적 입시제도, 공교육체제 학교운영의 특성, micro level의 개인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분석틀을 구성하여 사교육 유발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교육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고 특히, 국제수준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각국의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동기는 보완적 동기뿐만 아니라 학력주의 가치관, 경쟁적 입시제도, 공교육 체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적 동기 역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IMSS 12학년에서의 사교육 참여 양태는 학력경쟁에 대응하는 사교육 참여형태를 시사하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충분한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수요유발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추후 사교육의 영향과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

■ 주요어 : 사교육, 수요기제, 보완적 동기, 경쟁적 동기, 제도적 관점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1-B00132).

** 서울대학교 교수, 『2단계 BK 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 사업단』 참여 교수임.

***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I. 서론

한국교육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대입제도,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사교육제도는 다른 공교육 제도와는 달리 교육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간 우리 교육 정책은 사교육을 공교육과 대립적인 관계인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사교육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과열 현상으로 보고,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로 취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사교육 현상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우리 역시 그간의 사교육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사교육에 대한 보완적 접근, 공생적 접근을 하고자 하는 정책 대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이종재, 2004). 그러나 국제적인 사교육 현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교육에 관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은 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규모 파악에만 주력해 왔던 한계가 있고, 최근 들어 사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으나 사교육 현상에 대한 국제적 분석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외의 사교육 현황을 파악하려는 시도에서도 각국의 상이한 연도에 실시된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사교육 참여율 등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데 그친 한계가 있다. 물론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 문헌들을 대상으로 그 연구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 역시, 각국의 사교육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획득 차원에서 중요한 과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각국의 실제적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동일 측정 시점에 유사 연령층의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실시된 자료를 토대로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동인 구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사교육 동향에 대한 국제적 비교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 현황과 사교육 수요 유발 요인에 관해 전 세계적인 동향을 개관하고자 한다. 사교육의 세계적인 현황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 기제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교육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된다. 그간의 사교육 연구는 이러한 연구 주제를 간과한 채 대책 마련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각국의 사교육 대책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초점을 두어, 모색된 대안의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각국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개별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분석하고, 사교육 수요유발요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교육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II. 분석의 틀

1. 사교육(Shadow Education)의 개념과 본질

사교육은 가정교사와 학생간의 일대일 교수 학습과정으로 시작되었다. 사교육은 가정교사와 학습 집단의 관계로 확대되고, 학원(일본의 Juku, 터키의 dersane)의 형태로 확대되어왔다. 사교육은 그 대상과 내용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고 성격 또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나 사교육의 성격은 대체로 공교육에서의 학업성취와 학업경쟁을 지향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보완적 사교육으로 규정되어 왔다. 공교육에서의 학력보완을 위한 보완적 사교육이 공교육과 '평행 체제(병렬구조)'로 존재한다는 점은 UNESCO Report가 처음으로 지적하였다(UNESCO 1976:3).

이후 Marimuthu 등(1991: 8)이 사교육을 공교육과의 평행체제의 관점에서 "shadow educational system"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소개하였고, Stevenson과 Baker에 의해 "shadow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학계에 최초로 등장하였다(Stevenson and Baker, 1992). Stevenson과 Baker는 "shadow"라는 용어를 형식 교육과 무형식 교육의 강한 연계를 의도하여 사용하였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테스트를 받으며 학년이 올라가는 등의 공교육의 특징과 유사한 학교 밖 학습활동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교육에 대해 "shadow"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이러한 교육 활동이 음성적임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반면, Bray(1999)는 공교육에 대한 음성적 체제로서의 사교육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shadow"를 사용하였고, The shadow education system의 특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하였고, 이후 "shadow education"이 세계적인 교육현상, 즉 사교육의 세계적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Bray(1999, 2003)는 사교육을 의미하는 "shadow"의 특징을 명료하게 설명하였는데, 첫째, 사교육은 공교육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둘째, 사교육은 공교육의 형태를 모방하며, 셋째, 사교육은 공교육에 비하여 공적 관심을 덜 받고, 끝으로 사교육은 공교육에 비해 존재와 특징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사교육은 "shadow"라는 특징과는 모순 되게 오히려 공교육에 영향을 주고, 사교육 체제 자체가 제도화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Bray, 2003; Baker et al, 2005).

사교육은 참여 주체와 목적, 대상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을 중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학업성적 향상 및 고입·대입 시험 대비 등을 목표로 학교 밖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하는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우선, 사교육의 세계적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교육에 대한 주요 국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사교육에 대한 주요 국제 연구들은 첫째, Bray(1999, 2003), Silova 등(2006), Foondun(2002) 등 사교육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간 비교를 한 연구, 둘째, Baker 등(2001, 2002, 2005) 국제수준의 data를 토대로 사교육에 대한 전 세계적 경향성을 분석한 연구, 셋째, 각국에 대한 자체 조사 연구(Tansel & Bircan, 2006)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국제수준의 조사에서 사교육의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개별 응답치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사교육 실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문헌 분석에서는 최근 각국 내지는 국제 비교 연구로서 사교육 현상에 대해 직접 조사한 정보들을 토대로 발표된 연구물들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각 연구물들의 조사 내용 및 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내용들을 종합하여 세계적인 동향을 구성하는 것은 동일한 준거에 의한 동향 분석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국 사교육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차원에서 주요 연구 문헌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의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일 시점에 개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준거에 의해 사교육의 세계적 동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TIMSS(Trend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1995, 2003년도 8, 12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Baker 등(2001)의 연구에서 1995년 8학년 자료를 활용한 바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교육 유발 동인기제에서 핵심 요소인 "경쟁적 입시제도"와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12학년을 분석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최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3년 8학년으로 분석 연도 역시 확대하였다¹⁾.

TIMSS 자료 분석에서는 1995년 자료를 활용한 Baker 등(2001)의 연구 결과와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위하여 해당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TIMSS 자료 분석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단계로서 각국 사교육 참여율을 도출하고, 2단계로서 학업성취도 상위 1/3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과 학업성취도 하위 1/3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를 도출하였으며, 끝으로 LRM(Logistic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와 수학 성적 간의 logit coefficient를 도출하였다. 1단계는 사교육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단계이고, 2, 3단계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동기를 밝히기 위한 단계이다. 분석에 활용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²⁾.

1) 2003년도 TIMSS 조사에서는 12학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TIMSS 설문지는 학생들에게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묻지 않기 때문에 Baker 등(2001)은 사교육과 수학성적과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사교육 참여 이유를 추정한 바 있다. 사교육 참여 여부를 종속 변인에 두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학생의 성별, 학교 프로그램 등 사교육 참여 결정에 영향을

사교육 참여 여부 = f(SES, 모국어, 성별, 지역사회 유형, 학교에서 개별화된 보충수업 제공 여부, 수학 성적, SES와 수학 성적의 교호항 등)

3. 연구 분석 틀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이 우리나라 등 일부 동아시아 국가에 국한된 현상인가?

둘째, 왜 사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사교육이 특정 국가만의 현상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현상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누가 왜 사교육을 받으려하는가? 왜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이 일부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많은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사교육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사교육 수요 유발 요인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은 사교육문제의 분석과 대응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기존의 사교육 수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개인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분석을 하였으나(Tansel and Bircan, 2006 등), 최근 사교육 수요 유발의 요인과 작용 기제에 대한 이론적 모형으로 제도적 관점을 도입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Baker et al, 2001; Baker & Letendre, 2005). Baker et al.(2001)의 연구는 TIMSS data의 분석을 통하여 사교육의 참여도와 사교육 수요 결정 요인에 대한 국가간 비교분석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TIMSS에 참여한 41개 국가의 8학년 수학성적을 활용하여 사교육의 보편성, 사교육 활용 전략, 사교육 참여와 교육체제 특성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였다.

Bray(1999, 2003)는 특정 국가에서 사교육이 성행하는 원인을 문화, 사회, 경제, 교육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사교육의 유발 과정을 지적하였다. ① 유교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노력을 강조하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사교육이 성행한다. ② 90년대 중·후반부터 영미권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단위학교의 경쟁력을 강조하게 되면서 사교육 산업은 급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영국과 호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단위 학교의 학업성취도를 공개하는 등의 교육개혁 이후,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교육 수요가 증가했다. ③ 고등교육에 대한 경제적 기대 수익이 큰 국가일수록 대학입학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우위 확보수단인 사교육이 성행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무학자와 대졸자 간의 임금격차가 무려 5배에 이르며,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임금격차는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이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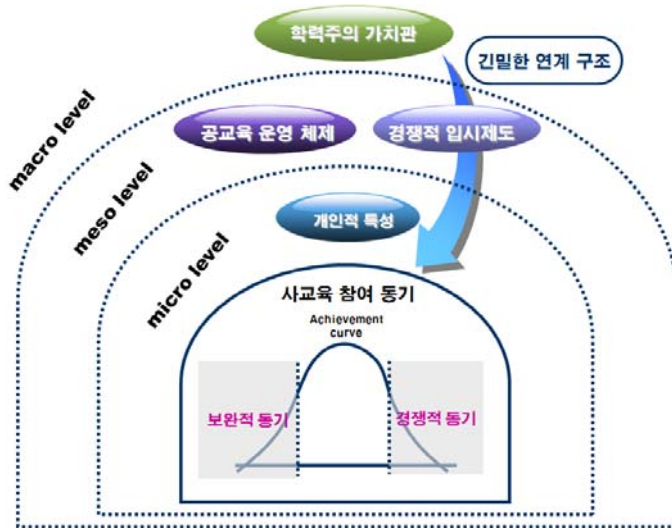
주는 변인들(Stevenson & Baker, 1992)을 통제하였다.

과열 사교육의 원인이 된다. ④ 공교육의 수업방식이 주로 교사중심의 교수학습방법에 편중되어 있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교육체제에서 사교육이 성행한다.

Rohlen(1980)은 일본에서 사교육 현상이 확산되는 원인으로 중앙집권적, 통제적 시험, 지원보다 경쟁을 조장하는 학교 체제, 초·중등학교에서의 성취와 미래의 교육기회, 직업, 사회지위 간의 강한 연관성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관점은 Baker 등(2001)의 제도적 관점과 유사하다. Blumenthal(1992) 역시 일본 사교육 팽창의 원인으로, 교육체제 운영의 몇 가지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에 가계의 평균소득 증가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1979년부터 실시된 국립대학시험의 획일화, 학교 교사들이 사교육에 공교육의 기능을 위임하여 사교육을 받지 않던 학생들도 사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 학생·학부모의 경우 주변의 동료들이 모두 사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동료집단의 압력, 일본의 획일적 교육제도 즉, 학교교육을 교과목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적고, 교재가 동질적이며, 공교육분야에 평등주의 철학이 지배적이라는 점, 교수자 중심의 수업방식, 획일적·한정적 교과내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대학입학시험제도 등을 지적하였다.

Tansel과 Bircan(2006)은 터키에서 사교육이 만연한 이유를 고부담 대입 시험에서 원인을 찾고 있고, Foondun(2002)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만연한 사교육 현상의 원인을 사교육의 수요 및 공급측의 요인으로 구분지어 설명한 바 있다. 수요측 요인으로는 명문대학 입학 경쟁, 공교육 부실(비효율적 교수학습), 대규모 학급크기로 인한 개별학생에 대한 무관심, 동료집단의 압력을 제시했고 공급측 요인으로는 교사의 낮은 임금과 사기와 교사가 주도하는 강요된 사교육을 지적한다. 또한 그는 주변 학부모의 자녀가 사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학부모도 사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자녀가 다른 학부모의 자녀보다 낮은 성적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학부모의 경향이기 때문에 강조하였다.

이상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① 교육체제 외적요인으로서 학력주의와 ② 학력경쟁을 관리하는 인증체제(gate-keeper)로서의 고부담 선발 시험, ③ 공교육 체제와 학교교육의 특성, 그리고 ④ 사교육을 활용하는 개인적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Baker 등(2001)의 사교육에 관한 제도적 관점은 교육체제 외적 요인으로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요인군이 계층을 이루어 사교육수요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모형화할 수 있다.



[그림 1]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기제 분석 모형

III. 사교육 현상의 세계적 보편성

사교육의 참여양태는 다양하다. 사교육에 대한 Bray(1999)의 개관은 사교육이 일본, 한국, 홍콩, 대만 등의 일부 동아시아 유교권 국가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아시아의 싱가포르, 스리랑카, 미얀마뿐만 아니라 남미의 브라질,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탄자니아, 이집트, 모로코 등의 국가에서도 폭 넓게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교육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저소득 국가에서도 성행하고 있고, 구소련에 속해 있던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최근에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면서 사교육이 중요한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Silova et al, 2006).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낮더라도 사교육에 참여 양상은 서유럽, 북미에서도 증가세에 있다. 사교육은 이제 세계적 교육 현상으로서 정책결정자들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Baker & LeTendre, 2005).

Baker 등(2001)의 연구는 학생들이 학교 성적의 향상을 위하여 학교 밖 사교육 활동을 활용하는 현상이 빈번해지는 것은 현대 학교교육의 보편적인 현상임을 보였다. 그들은 TIMSS 1995 8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이 현대 학교교육의 보편적인 현상임과 사교육 참여 전략 및 사교육 참여가 국가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TIMSS의 수학 영역, 8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검사에 참여한 41개 국가 중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40%가 넘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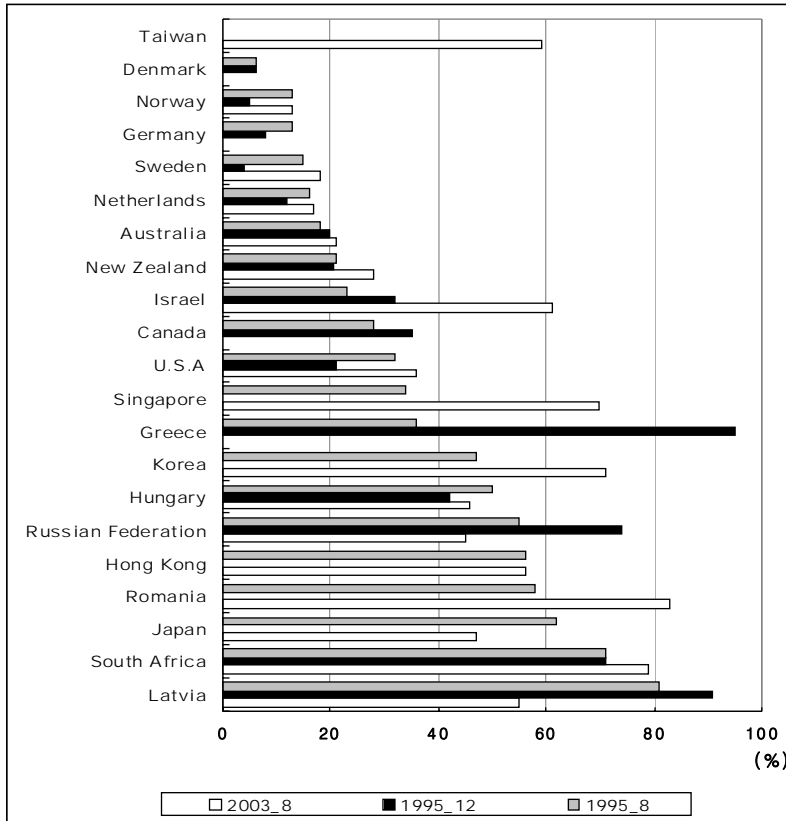
가 16개 국가에 이르렀다.

이 연구에서 TIMSS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TIMSS의 1995년 자료와 2003년 자료를 분석하여 본 결과는 전반적으로 1995년도 8학년에 비해 2003년도 8학년 자료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진학 시점에 근접한 12학년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TIMSS data도 사교육 참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참여 정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 2]는 TIMSS 1995, 2003년도 8, 12학년 공통 참여국을 대상으로 TIMSS 1995년에 비해 2003년의 사교육 참여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8학년과 12학년 간에 사교육 참여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합하여 연구한 Bray와 Kwok(2003)의 연구 결과와도 같다. Bray와 Kwok(2003)은 홍콩의 사교육 수요 형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중등교육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각 학년에서 시험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학생들은 큰 규모의 시험에 기반한 대규모 사교육 수업에 참여한다. 셋째, 사교육에 참여하는 주된 동기로 시험 준비와 학교 수업의 이해 부족을 들고 있다. 특히 시험 준비에 대한 사교육 동인이 가장 컸고, 이 현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Kanellopoulos와 Psacharopoulos(1997) 역시 1988년 그리스의 가계지출자료를 사용하여 사교육 참여 형태를 분석한 결과 학생이 대학입학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일 경우(즉, 대입에 더욱 가까운 고학년의 경우) 사교육 참여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사교육 현황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에서도 사교육 참여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은 77% 학생이 사교육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통계청, 2008), 일본 역시 중등학교 학생 중 75.7%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문무성, 2003), 타이완도 중등학생의 81.2%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seng, 1998). 베트남은 고등학생의 76.7%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Dang, 2007), 터기의 경우도 고등학생의 35%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Tansel & Bircan, 2006). 북미지역의 경우는 사교육 참여율이 아시아 지역에 비해 낮지만, 사교육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16세 학생의 20%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고(Davies, 2002), 미국의 경우도 SAT 준비를 위하여 고등학생의 11%가 학원을 이용하고 7%는 tutor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chmann et al., 2007).

유럽지역에서는 독일의 경우 21%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고(Kranmer & Werner, 1998), 그리스는 중등학생의 80%가 참여하고 있으며(Psacharopoulos & Papakonstantinou, 2005), 동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 재학중 사교육 참여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제르바이잔 92%, 리투아니아 58%, 우크라이나 68% 등으로 나타났

다(Silova et al., 2006). 아프리카지역은 이집트의 경우 6~15세 학생 중 71%가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Suliman & El-Kogali, 2002), 케냐는 68.6%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Nzomo et al, 2001).



[그림 2] 국제적인 사교육 참여율 비교

IV.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 기제

1. 제도적 요인

사회가 능력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교육이 업적주의 사회(meritocracy)를 구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선별장치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공교육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배분하는 주요 선별 기제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공교육의 제도화 과정에서 학교에서의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 역시 증대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학업성취 수준과 그 속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학력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학교졸업장을 포함하는 학력과 사회적 가치와 지위의 배분간의 긴밀한 연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학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유발한다. 이 학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 상급학교의 입학에 위한 시험이나 소위 일류 대학에 대한 입학전형이 시험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 이 시험은 고부담 시험이 된다. 학생의 입장에서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경쟁은 고부담 시험에서의 경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경쟁 메커니즘이 사교육에 대한 제도적 수요를 결정하고, 시험에 의하여 선별을 할 경우에 시험 준비를 위한 사교육 수요는 더욱 증가한다.

사회가 업적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정은 그 사회적 지위를 세습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실하게 되었다. 공교육이 보편화되고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수록 사회적 가치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교육을 통한 추가적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교육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 현상은 일부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상이다(Baker et al, 2005).

Baker 등(2001)이 설명한 사교육 수요 유발요인에 대한 제도적 관점은 3개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제도주의적 관점은 그 사회가 업적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① 업적 실현가능성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학력(credential)과 학력의 가치를 추구 하는 학력주의(credentialism), ② 학력과 사회적 가치실현간의 밀접한 관련성(tight linkage)과 이에 대한 인식, ③ 학력취득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인증체제(social gate-keeper) 기능을 수행하는 선발시험(high-stake tests) 등의 3개의 요인들이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교육체제 외적인 제도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사교육은 이 사회적 보상에 대한 기대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선발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에 투입하는 사적인 추가노력이 된다.

우천식 등(2004)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관점에서 '생애기대수익(life-time expected welfare)'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사교육을 생애기대수익에 기초한 교육투자의 일부로 본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생애기대수익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사교육과 학교 내 학업성과, 대학진학성과, 대학에서의 학업성과, 취업성과, 취업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맥락에서 사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모형은 긴밀한 연계의 고리로서 사교육의 진학성과, 취업성과, 취업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주목하여 살피고 있다. 이 연구는 사교육이 대학진학에는 효과가 있으나, 대학에서의 성적향상에는 효과가 없어, 국가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학입학자들의 SAT 성적에 근거하여 대학서열을 정했을 때, 대학서열에 따라 성적차이에 비해 임금 차이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대학의 높은 투자 수익과 명문대 졸업자의 임금프리미엄이 입시경쟁과 사교육 수요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가. 학력주의 가치관(credentialism)과의 강한 연계(tight linkage)

학력주의(學歷主義)란 학력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 가치관이나 사고체계로서 학력이 능력판단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다. 학력주의를 가진 경우, 학력을 유일한 능력의 확인 또는 엘리트 선발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김태준, 2003). 사회에 따라 학력을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인식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이정표, 2001).

한국 사회는 일류 대학에 입학하는 것에 과도한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하여 때로는 이를 인생에서의 성공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최상근, 2003; 현주 외, 2003). 이러한 경향은 일류 대학의 학력을 가지기 위한 높은 욕구로 나타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일류 대학 입학을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다(김현진, 2004). 일류 대학에 진학에 대한 높은 욕구는 사교육 수요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 욕구가 사교육의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2006). 한국 사회의 경쟁구조에서 학력과 학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일류 대학 진학 그 자체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왜곡된 교육 경쟁구조가 사교육의 효용을 높인다(이종재, 2004).

Bray(1999, 2003)가 지적한 학력간 임금격차는 학력주의를 강화하는 학력과 사회적 가치의 배분간에 강한 연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강화해 줄 것이다. Tansel(2002)도 터키에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학력주의와 강한 연계에 대한 인식을 지적하고 있다. 졸업 후, 고소득 유망직종이 보장되는 명문 대학의 인기학과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학부모들도 이러한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켜 명문대에 합격시키고자 한다. 사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입장에서 사교육비 지출은 재정적인 희생을 의미하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더라도 일단, 명문 국립 대학교에 입학하면 등록금 부담이 적어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득이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주된 이유는 명문대 입학을 보장하는 명문 고등학교의 입학시험준비와 학교 수업보충으로 구분된다.

나. 경쟁적 입시제도(high-stake test)

선행연구들은 한국, 그리스, 터키 등의 국가들에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진학 경쟁과 대학입학시험이 존재하는데 두고 있다(Bray, 1999; Bray and Kwok, 2003; Tansel and Bircan, 2004; Psacharopoulos and Papakonstantinou, 2005).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입학시험이 학생을 선발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시험준비를 위한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관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Baker 등(2001)은 다

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는 사교육은 미래의 대학 진학과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기회 획득 간의 밀접한 관련성, 대학 진입의 선별 장치로서의 고부담 입학 시험 등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교육적 기회 획득을 위한 강력한 경쟁이고,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국가교육체제 운영에서 고부담 입시제도가 경쟁적 동기에 의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는 고부담 입시제도의 존재가 TIMSS에 참여한 8학년 학생의 사교육 참여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힌바 있다. 8학년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몇 가지 중요한 분석상의 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고부담 선발 시험이 전 세계적인 사교육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사교육을 이용하는 주된 동기가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를 보충하기 위한 동기로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40개국 중 30개국 학생들은 성적보충(remedial purpose)의 동기에 의해 사교육 참여하고 있었고, 한국, 루마니아, 태국의 경우에만, 주로 경쟁적 동기에 의해 사교육 참여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Baker 등(2001)의 연구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밀접한 관련성에 근거한 학력주의와 고부담 선발시험이 사교육 주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고부담 입학시험의 측정치가 적확도 낮고, 대학 입학과 거리가 있는 8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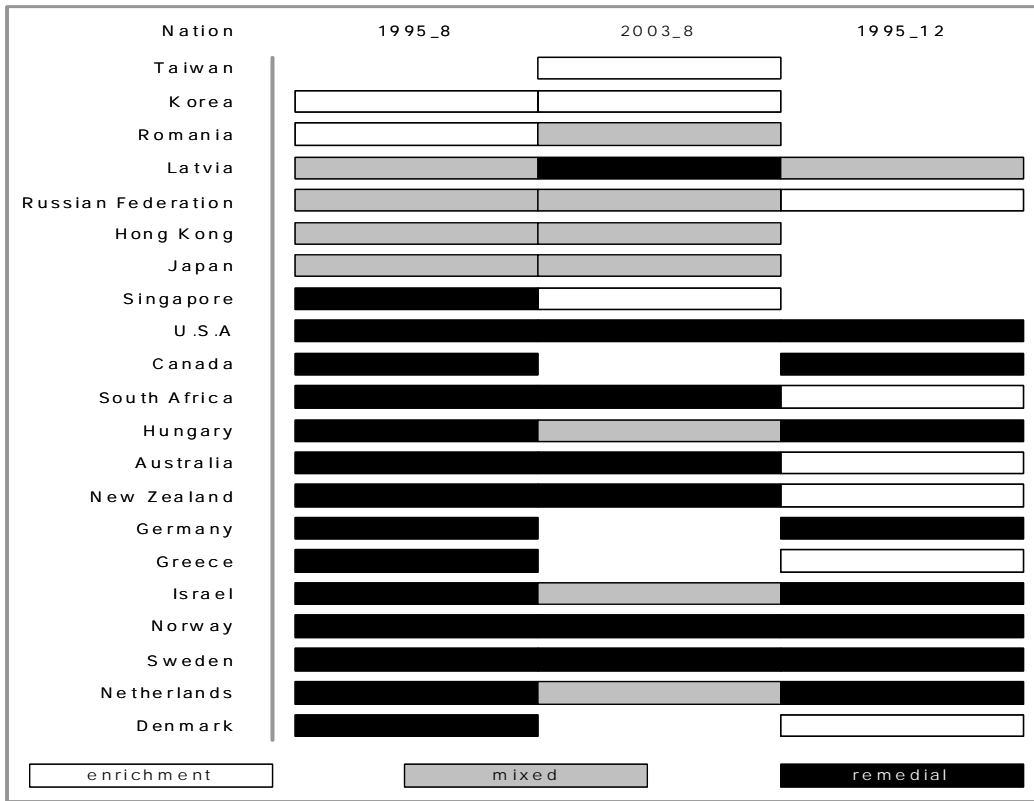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Baker 등(2001)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TIMSS data(수학 영역)에 대하여 12학년의 자료를 추가로 분석 결과는 8학년에 비하여 12학년에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TIMSS에 참여한 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 8학년의 자료와 12학년, 그리고 2003년의 8학년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사교육 참여 동기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1995년도 8학년에 비해 동년도 12학년, 2003년도 8학년 자료의 사교육 참여 동기에 있어 경쟁적 동기 경향이 크게 나타나며 특히 대학진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2학년의 경우 그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 TIMSS 자료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변화의 추세를 발견하였다.

첫째, 사교육에 참여율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다.³⁾ 그러나 1995년에 8학년과 12학년 간에서는 오히려 12학년의 경우가 참여율이 낮았다(N=15, M=36.2%, SD=31.3%).

둘째, 8학년을 대상으로 사교육 참여 동기 기제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1995년에는 한국, 루마니아, 태국이 경쟁 기제를 활용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러시아, 슬로바키아, 홍콩, 콜롬비아, 일본, 리투아니아 등이 입시 경쟁과 학력 보충의 혼합 기제를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2003년에는 대만, 한국, 싱가포르가 경쟁 기제를 활용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혼합 기제를 사용하는 국가도 헝가리, 일본, 루마니아, 홍콩, 이스라엘, 러시아, 네덜란드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5년의 12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학력 보충 기제를 사용하는 국가 중에서도

3) 1995년에 M= 37.6%, SD=21.3% N=41, 2003년 M=46.7%, SD=21.8%, N=18



[그림 3] TIMSS 참여국의 사교육 참여의 Modal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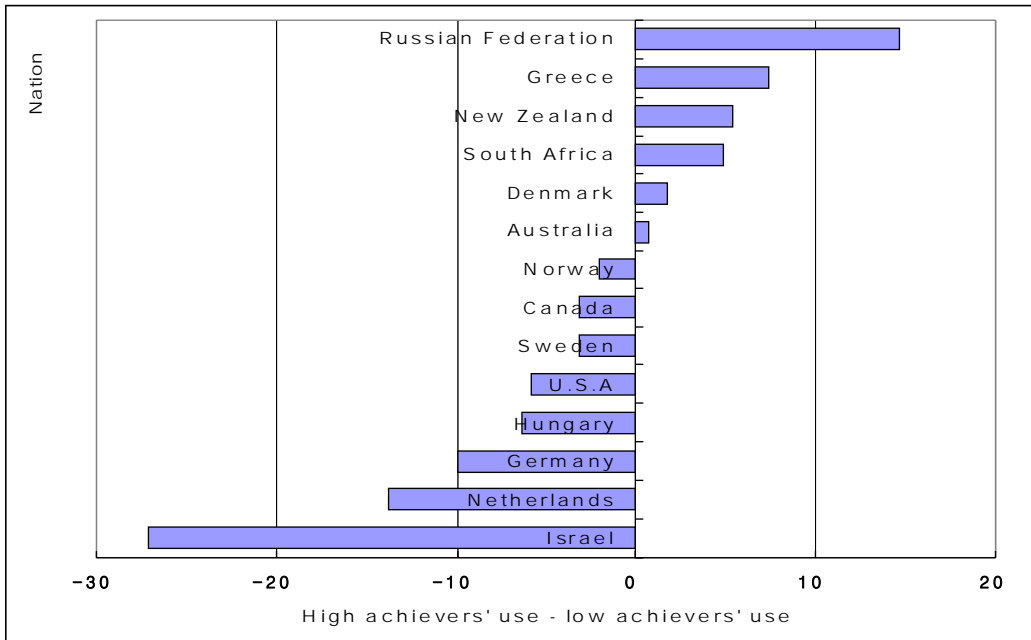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 수학적 상위 1/3에 해당하는 학생이 더 많은 국가를 발견할 수 있다. 러시아, 그리스, 남아공, 덴마크, 호주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례는 대학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는 경쟁기제에 기인하여 사교육을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시아권에서 국제수준의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국가에서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과외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보아 “Tight-Linkage” 와 “High Stake Testing”이 사교육수요유발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양정호, 2003; 이종재 외, 2007; Bray,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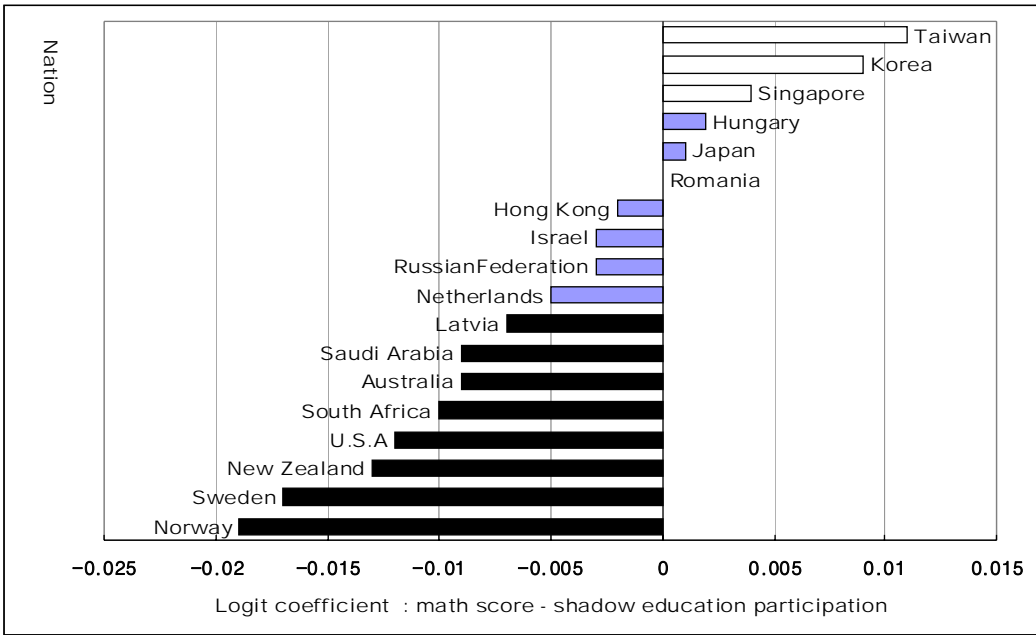
사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사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기대 이익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가진 집단의 참여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교육 참여가 합리적 계산에 의한, ‘학습에 대한 투자행위’임을 시사하고 있다. 사교육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담능력(affordability), 사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역량(efficacy)과 사교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의 속성이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준다. 사교육 참여는 대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사교육 서비스 공급이 원활한 대도시 지역에서 높다.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미숙 외, 2006).

학생의 성적과 사교육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대체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과외비를 지출한다(이주호, 김선웅, 2002).

사교육에 참여하는 양태를 Baker 등(Baker, et al, 2001)이 분류한 참여동기의 구분을 보면 한국의 사교육 참여형태는 전반적으로 경쟁 전략(competition strategy)이 참여동기가 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의 사교육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전략적 동기에 의하여 과외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처하게 될 상대적 경쟁력의 상실에 대한 우려도 사교육에 참여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상위권 역시 과외참여도 높다(최상근, 2003; 이수정, 2006; 이주호, 김선웅, 2002). 특목고 입시로 인한 사교육이 중학교와 초등학교 고학년에 걸쳐 과열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 부담이 주된 동기가 되고 있다(강태중 외, 1997). 초등학교·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원의 선행학습전략이 경쟁동기에 의한 사교육 수요를 자극한다.



[그림 4] TIMSS(1995) 12학년 대상 각국의 사교육 참여 동기 분석



[그림 5] TIMSS(2003) 8학년 대상 각국의 사교육 참여 동기 분석

2. 공교육체제 학교운영의 특성

사교육은 교육체제의 발전 유형에 따라서 참여 양태와 정도가 다를 수 있다. Baker 등(2001)의 연구도 교육체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사교육 수요 기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취학률이 높고 교육 재정 지원이 충분한 국가 즉, 공교육체제의 질적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학력 보충 동기에 의한 작은 규모의 사교육 수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학교교육의 특성에 따라 사교육 수요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학교교육의 부실을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는 논의가 있다. 교사에 의한 강요된 과외와 학교교육의 부실로 인한 학습지도의 미비가 학력보충을 위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정부의 강한 학교규제와 이에 따른 학교교육의 질과 다양성 결여에 의한 시장반응이라고 해석한다(이주호·홍성창, 2001; 이주호·김선웅, 2002).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사교육에 대한 신뢰와 사교육 참여가 증가한다(전성일 외, 2003; 김현진, 2004). 사교육을 선호하는 캐나다 학부모의 성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교육 선택 여부에 인구통계학적 특성보다도 공교육 만족도와 사립학교 선호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교육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Davies et al, 2002). Davies 등(2002)은 캐나다의 학원산업 팽창의 원인으로서 지방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규제 강

화, 공교육 예산삭감, 정치·사회적 불안감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Ontario 지방의 사교육 팽창이 수학교육과정의 심화, 표준화된 검사의 시행, 학생성적보고카드 작성, 13학년제의 폐지로 인한 대학입시경쟁강화 등의 교육개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교에서의 평가와 입학자 선발이 시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될수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는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학교간의 차이가 단일 기준에 따라 수직적으로 서열화 될수록 상위서열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심화될 것이고, 시험성적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할 경우에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때,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학교교육의 특성을 3개의 요인을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첫째, 학교의 서열이 수직적으로 서열 계층화되어 있는 정도와 수평적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정도와 둘째, 학교에서의 평가와 입학자 선발이 시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정도가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학교교육의 특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으로 학교교육의 발전수준이다. 학교교육 발전의 수준을 초·중등교육에서의 취학기회, 학교교육조건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수준에 따라서 그 유형을 구분하면, 취학율과 재정지원수준을 GDP 대비 교육예산 규모로 규정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림 6] 교육발전양상과 사교육 동기 전략

사교육은 높은 취학률을 유지하면서 이를 위한 재정지원이 부족한 저비용적 접근을 따를 경우에,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시험성적 중심지향과 다양한 학업수행실적을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재정지원 수준이 낮으면서 취학률이 높은 저비용적 접근을 따르는 교육체제에서 시험성적중심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대학입학자를 시험에 의하여 선발할 경우에 사교육 수요가 가장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높은 단계 교육체제(재정지원 상황이 좋고 교육의 양적 팽

장이 완성된 공교육 체제 즉, 양적 질적으로 좋은 공교육 체제)에서도 경쟁적 대입제도(고부담 입시제도)가 작용할 경우에는 사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학률이 낮으면서도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엘리트주의 접근을 따르는 국가에서 사교육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취학률이 낮으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역시 열악한 낮은 단계 교육체제의 경우에, Bray(2003)가 학교교육의 부패현상으로 지적한 교사가 과외지도를 하고 추가수입을 얻는 교사과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요인으로 배려와 보살핌의 학교교육 특성의 존재여부를 들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의 존재여부이다(Bray, 2003: 26). 이들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생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학교, 그리고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에서의 학생간의 편차가 적은 학교일 수록, 학생의 학력보충을 위한 보완적·보충적 수요를 학교 안에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교에 취학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에 대한 참여가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낮은 학교교육의 질이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중(2004)은 과외수요의 결정요인에 회귀분석 결과, 거주지역이나 부모의 학력이 동일한 경우, ① 고교 1~3학년 학력의 부가가치(학교의 생산성)가 떨어지는 학교, ② 교내 학생들의 성적 산포도가 큰 학교, ③ 교내 학생 성적의 평균이 낮은 학교, ④ 공립 고등학교 등 네 가지 특성을 가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과외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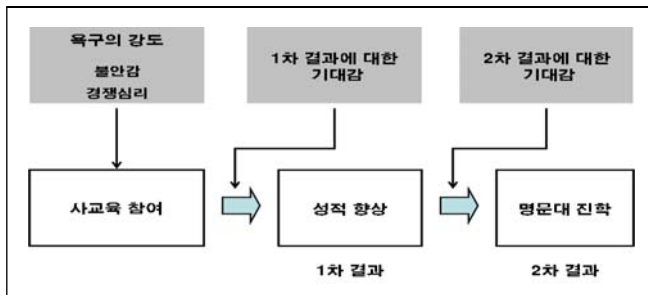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는 공교육의 질이 낮을 경우, 학생이 자기학습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과외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하며, 과외대책으로서 공교육 내실화가 포함되어야 할 정책내용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3. 개인적 차원의 요인 : 사회·경제·심리적 요인들

사교육 참여를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참여 결정자들의 의사결정과정을 이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교육 참여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으로 기대이론과 게임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Vroom(1960)의 “기대이론(Goal expectancy theory)”은 개인의 노력, 의사결정에 대한 동기유발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으로서, 노력을 통해 일차적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기대감과 일차적 성과를 통하여 더 나아가 2차적 성과 혹은 보상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서 노력을 유발하는 동기유발이 달라짐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이다. 이 이론을 확장한 Porter-Lawler(1968)의 모형 속에는 과외에 참여하려는 동기유발을 조성하는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대이론 모형을 확장하여 사교육에 참여하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적용할 경우에 사교육 참여를 조장하는 개인의 사회, 경제, 심리적 요인들을 규정할 수 있다. 사교육 참여에 따른 ① 제1차적 성과, ② 제2차적 성과와 이에 대한 보상의 가치, ③ 제1차적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확률, ④ 제1차적 성과를 통하여 제2차적 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사교육 참여 동기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교육 참여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로서의 학력향상과 그 실현 가능성, 학력향상으로 기대하는 궁극적 성과로서 기대하는 보상으로 대학입학이 주는 주관적 가치, 그리고 학력향상으로 대학입학을 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사교육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을 설명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사교육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의 능력수준, 사교육의 효과성, 사교육의 효과로 최종 가치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최종목표의 가치에 대한 인식, 사교육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SES), 자녀수와 자녀의 출생순위 등은 목표달성 기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관련되는 변인이 된다. 목표달성 기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요인들이 사교육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개인차원의 사교육참여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은 그 자체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사교육 참여를 조장하는 요인들로 볼 수 있다. 기대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교육에 대한 참여는 대입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자 하는 기대감, 그 결과 명문대 진학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이들 기대 결과가 학생·학부모에게 상당한 유인으로 작용하는 학력주의적 가치관 근거하여 사교육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사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할 경우에 사교육 참여에 대한 동기는 강화된다.



[그림 7] 사교육 참여에 대한 기대 이론 모형

학생의 특성으로서 성별과 출생 순위가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관련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먼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다를 뿐 아니라 부모의 자원이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미정, 1998; 이정환, 2002). 또한 부모의 첫 번째 자녀인 경우에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과 자원이 집중된 결과로 이해가 가능하다(이승신, 2002; 이정환, 2002). 뿐만 아니라 학생의 성적과 사교육 참여율 간의 양적 인과관계를 밝힌 바 있다. Bray와 Kwok(2003)에 의하면 홍콩과 타이완의 경우, 명문 학교 재학생일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Kanellopoulos와 Psacharopoulos(1997)는 1988년 그리스의 가계지출자료를 사용하여 사교육 참여 형태를 분석한 결과 학생이 대학입학시험을 치루는 수험생일 경우 사교육 참여 경향이 높으며 사교육비 지출액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Stevenson과 Baker(1992) 역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사교육 참여와 부모의 학력·소득수준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 경향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이정환, 2002; 양정호, 2003; 김현진, 2004). 특히 부모 중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사교육 참여와 밀접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ray(2003), Foondun(2002) 역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교육 참여율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관되게 나타남을 강조한 바 있다. Tansel과 Bircan(2006)은 1994년 가계비 자료를 활용하여 터키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 지출 총액과 부모의 교육 수준이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Blumenthal(1992)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상위 20% 계층의 경우 하위 20% 계층에 비해 10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학부모의 직업을 보면 임원, 전문직, 사무직 등 고등교육이 요구되는 전문직 종사의 경우 사교육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tevenson과 Baker(1992)는 일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의 소득이 높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으며 이와 같은 가정배경변수는 전체적으로 사교육 참여율의 12~15%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거주 학부모가 비도시 거주 학부모보다 사교육 참여 경향이 높고, 특히 도시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일수록 사교육 참여가 활발한 것은 여러 세대가 밀집되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자녀들에 대한 경쟁압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이주호·김선웅, 2002; 김현진, 2004).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 차이는 외국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도시 거주일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들이 과외를 하므로 자신도 과외를 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불안은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남들이 사교육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만 학교교육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심리적 불안은 집단적 강박관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성기선 외, 1999)이 수행한 연구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3.9%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불안”으로

응답하여 한국 사회에서 실제 사교육에 대한 집단적인 심리적 불안이 존재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집단적인 심리적 불안은 입시과의 수요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현재 학부모들이 놓인 상황은 “입시과외는 상대방 학부모의 전략적 과외 선택행위에 대한 본인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백일우, 1999).

다른 이론적 설명모형으로서 게임이론모형을 들 수 있다. 개인차원에서의 사교육에 대한 참여가 본인이 원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여하게 된다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에 의한 설명도 제기된다((백일우, 1999; 김지하, 2005). 게임이론은 합리적 의사결정자들의 소비적 경쟁 게임이 존재할 때 상호의존적 선택에 관한 이론으로서, 즉, 각 경기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경쟁적 상황에서의 전략선택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고부담 대입 선발 시험이 존재하고 그 결과가 이후 대학진학 및 노동시장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되는, 즉 학력주의 가치관과 교육 성취와 사회적 성취간의 밀접한 연계 구조가 존재하는 제도적 상황에서는 학생, 학부모가 성적향상 및 대입합격의 보상이 사교육 비용 보다 훨씬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교육 참여를 결정하게 되고 이런 결정은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학습자의 특성, 목표 대학 입학에 주는 가치, 소득 수준, 과외비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가 형성되고 경우에 따라 의사결정은 달라진다.

V. 결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사교육 현황과 사교육 수요 유발 기제에 관해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국제수준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각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동기는 보완적 동기뿐만 아니라 학력주의 가치관, 경쟁적 입시제도, 공교육 체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적 동기 역시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사교육 참여 동기를 대체로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보완적 기제 측면에서 사교육을 활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Baker와 LeTendre(2005)의 연구 역시 TIMSS 1995 8학년, 41개 국가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 수요 유발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학력 보충 동기에 의한 사교육 참여 양상이 강함을 도출한 바 있다.

사교육의 수요를 유발하는 이론적 설명으로,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주의 가치관, 교육 성취와

사회적 성취간의 밀접한 관련성, 경쟁적 입시제도, 공교육 운영 체제로 연결되는 업적주의 사회에서 학력경쟁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제도적 관점은 아시아국가에서의 사교육 열풍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TIMSS 8학년의 사교육참여를 종속변인으로 한 실증분석은 이 이론적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향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교육참여 측정치를 확보하여 이 가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TIMSS의 12학년에서의 사교육 참여양태는 학력경쟁에 대응하는 사교육 참여형태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교육은 한국과 일본, 홍콩, 대만 등의 일부국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캐나다 등의 북미 등의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로 이행과정에서 있는 구소련 연방국가에서도 크게 늘어나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사교육을 학교교육에 대한 보완적 관점을 넘어서 학교교육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shadow” 관점으로 개념화하여 이해하려는 최근의 노력들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Bray(1999, 2003)의 지적처럼 사교육이 “shadow”의 특징을 넘어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공교육 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도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사교육 유발 기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사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 마련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사교육에 대한 충분한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수요유발기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추후 사교육의 영향과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태중 외 (1997). 과외 사교육비 경감대책 구안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미숙 외 (2006). 입시산업의 규모 및 추이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지하 (2005). 대학입시과외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태중 (2004). 학교의 질, 학업성취도, 과외수요에 대한 실증 분석. in 우천식 외(2004).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63-186.
- 김태준 (2003). 성인의 학력주의 성향 해소를 위한 심리기제: 조망 축소에서 조망 확대로. 교육심리연구, 17(3), 131-148.
- 김현진 (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1), 27-45.
- 백일우 (1999). 입시과외수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7(4), 117-136.
- 성기선 외 (199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양정호 (2003).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요인 분석: 청년패널조사의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 연구. 한국교육, 30(2), 1-21.
- 우천식 외 (2004).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이미정 (1998). 가족 내에서의 성차별적 교육투자. 한국사회학, 32(1), 63-97.
- 이승신 (2002).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0(7), 211-227.
- 이정표 (2001). 국민의 학력관에 나타나는 학력의 사회적 함의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1(1), 55-75.
- 이정환 (2002). 가족환경, 과외, 성적. 한국사회학, 36(6), 195-213.
- 이종재 (2004).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포지션페이퍼 제1권 제1호.
- 이종재 · 이희숙 (2007). Worldwide growth of shadow education: Global pervasiveness and national differences. 서울대학교 BK21 제5차 교육포럼.
- 이주호 · 홍성창 (2001). 학교 대 과외: 한국 교육의 선택과 형평. 경제학연구, 49(1), 37-56.
- 이주호 · 김선웅 (2002). 학교 정책과 과외의 경제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8(2), 1-51.
- 전성일 외 (2003). 공교육 만족도를 결정하는 사교육 태도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30, 187-206.
- 최상근 (2003).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사교육비 경감 방안 제5차 공청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통계청 (2008).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 현주, 이재분, 이혜영 (2003). 한국학부모의 교육열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Baker, D. P., Akiba, M., Letendre, G. K., & Wiseman, A. W. (2001). Worldwide shadow education : outside-school learning institutional quality of schooling and cross-national mathematics achieve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3(1).
- Baker, D. P., Goesling, B., & LeTendre G. K. (2002). Socio-Economic status, School Quality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Heyneman-Loxley Effect on Mathematics and Science Achievement.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46(3), 291-312.
- Baker, D. P., & LeTendre, G. K. (2005). *National Differences, Global Similarities: World Culture and the Future of Schooling*.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lumenthal, T. (1992). Japan's Juken industry. *Asian Survey*, 32(5), 448-460.
- Bray, M. (1999). *The Shadow Education System : Private Tuto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lanners*. *Fundamentals of Educational Planning(61)*.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Unites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_____ (2003). *Adverse effects of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Dimensions, implications and government responses*. Pari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 Bray, M., & Kwok, P. (2003). Demand for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Conceptual considerations and socio-economic patterns in Hong Kong.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2(6), 611-620.
- Buchmann, C., Roscigno, V., & Condrón, D. (2007). *The myth of meritocracy? SAT preparation, college enrollment, class and race in the United States*. Paper presented i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Dang, Hai-Anh. (2007). The determinants and impact of private tutoring classes in Vietnam.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6(6). 683-698.
- Davis, S. (2002). School Choice by Default? Understanding the Growing Demand for Private Tutoring in Canada. *Nall Working Paper(No.65)*, 3-15.
- Foondun, R. A. (2002). The issue of private tuition: An analysis of the practice in Mauritius and selected South-East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8(6),

485-515.

- Kanellopoulos, C., & Psacharopoulos, G. (1997).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in a Free Education Country: The Case of Greec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17(1), 73-81.
- Kramer, W., & Werner, P. (1998). *Parental and paid tutoring*. Köln: Deutscher-Institut Verlag.
- Lee, S. J. (2006). *Prestige-Oriented View of College Entrance and Shadow Education in South Korea: Factors Influencing parent expenditures on private tutoring*.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Marimuthu, T., Singh, J. S., Ahmad, K., Lim, H. K., Mukherjee, H., Oman, S., et al. (1991). *Extra-school instruction, social equity and educational quality*. Report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Singapore.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Japan (2003). *The survey of expenditure on education*. Tokyo: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 Nzomo, J., Kariuki, M. & Guantai, L. (2001). *The quality of primary education: som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a survey of schools*. Kenya. Paris: IIEP-UNESCO.
- Porter, L. W.(1968). *Managerial attitudes and performance*. Homewood, IL: Irwin.
- Psacharopoulos, G., & Papakonstantinou, G. (2005). The real university costs in a 'free' higher education country.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4(1), 103-108.
- Rohlen, T. P.(1980). The juku phenomenon: An exploratory essay. *Journal of Japanese Studies*, 6(2), 207-242.
- Silova, I., Būdienė, V., Bray, M., & Zabulionis, A. (2006). *Education in a hidden marketplace: Monitoring of private tutoring*. Budapest, Hungary: Education Support Program of the Open Society Institute.
- Stevenson, D., & Baker, D.(1992) Shadow Education and Allocation in Formal Schooling: Transition to University in Jap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6), 1639-57.
- Suliman, El Daw A. and Safaa E. El-Kogali. (2002) "Why Are the Children out of School? Factors Affecting Children's Education in Egypt." Paper presented at the Economic Research Forum 9th Annual Conference, Al-Sharjah, UAE.
- Tansel, A.(2002). Determinants of Schooling Attainment for Boys and Girls in Turkey: Individual, Household and Community Factor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1(5). 455-470.

Tansel, A., & Bircan, F. (2004).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in Turkey. Discussion Paper, 1255*. IZA.

Tansel, A., & Bircan, F. (2006). Demand for education in Turkey: A tobit analysis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5*(3), pp.303-313.

Tseng, J. L. C.(1998).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at the Senior Secondary Level in Taiwan and Hong Kong*. The University of Hong Kong M.Ed. dissertation.

UNESCO. (1976). *Recommendation on the development of adult education*.

Vroom, V. H. (1960). *Some Personality determinants of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논문접수 2008년 5월 1일 / 1차 심사 2008년 5월 20일 / 2차 심사 2008년 6월 10일 / 게재승인 2008년 6월 20일

* 이종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BK 21 역량기반교육혁신 연구사업단 참여교수.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주요저서로는 "한국교육의 발전 전략과 새로운 과제", "학업부실학교의 규모와 특성에 관한 연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등 다수 있음.

* e-mail: cjlee@snu.ac.kr

* 이희숙: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취득. 주요저서로는 "대학특성 및 전공계열에 따른 교육 투자 수익률 분석 연구", "대입전형개발과정에서의 고교-대학 간 연계 조건과 효과" 등 있음.

* e-mail: hslee77@snu.ac.kr

Abstract

An Analysis on International Tendency of Shadow Education

- Focusing on the Demand Mechanism of Shadow Education -

Chong Jae Lee* · Heesook Le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real condition and mechanism of shadow education through analyzing international tendency on the scale and demand factors. For this purpose, major international studies on shadow education are reviewed and TIMSS(Trend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1995, 2003 data is analyzed. Also, the demand mechanism of shadow education is analyzed by building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the credentialism and tight linkage at macro-level in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of shadow education, high-stakes test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school management at meso-level, and finally the individual factors at micro-level.

Findings of the study are followings; Firstly, shadow education is not limited to Korea, but global phenomenon. Especially, for the countries that the achievement at the international standard test is high, the participation rate of students is also high. Secondly, the demand of shadow education depends not only on remedial motivation but on enrichment motivation strongly in responding to credentialism, high stakes testing and public school system. The participation pattern of TIMSS 12 graders implies participation of shadow education for corresponding to credential competition. To realize evidence-based policy making, the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as well as demand of shadow education is necessary.

Key words: Shadow education, Demand mechanism, Remedial motivation, Enrichment motivation, Institutional perspective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Visiting Postdoctoral Scholar, Florida State University